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6일 화요일 음 8월 11일 (3월)

한라칼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4℃, 낮 최고기온은 26-28℃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for Jeju.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1/28℃

모레 구름 많음 22/28℃

월드뉴스

파키스탄 최대 담수호 '필사의 물빼기'

만차호로 위험 수위 도달

최악의 몬순 우기 홍수로 시름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최대 담수호의 범람을 막기 위해 '필사의 물빼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파키스탄 만차호.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남부 신드주 당국은 전날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차호의 제방에 구멍을 내 물을 빼고 있다.

위도 낮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새롭게 물길을 내면 12만5000명이 사는 다른 지역 주민이 수해를 입게 된다.

당국은 이대로 물이 차올라 만차호가 범람할 경우 인근 세흐완시 등에 사는 주민 50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물빼기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지역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만차호의 물을 빼면 이미 물에 잠긴 인근 조히, 매하르 지역의 수

문은 "이번 조지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세흐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다"며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리일보 masthead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인사(人事)에서 '참신함'이란 옛볼 수 없으니



김병준 논설실장

문제로 내놓은 점수까지 다 까먹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전임 정권과 대비되면서 더 그랬을 것이다.

인사(人事)에서 '참신함'이란 옛볼 수 없으니

문제로 내놓은 점수까지 다 까먹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전임 정권과 대비되면서 더 그랬을 것이다.

더욱 가관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의 경우 27년 전 실무경험을 중시해 발탁했다. 고작 6개월의 짧은 경력까지 들먹이며 임명할 정도니 안쓰럽기 그지 없다.

새삼 오 지사의 취임사를 들춰보지 않을 수 없다. 의미있는 화두들이 있었다. 제약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열린마당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의 탄생을 기대하며



한진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미래에는 바이오헬스분야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동길 서귀포시 대동동주민센터

추석을 우리 고유의 표현으로는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한가위'의 '가위'는 음력 8월 또는 가을 한가운데를 의미하며 '한'은 어떤 날 앞을 붙어서 크다는 뜻을 더해 주는 우리의 고유의 말이다.

예방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관리, 비상진료·감염병 예방, 교통 시민 불편해소, 생활쓰레기 처리, 물가 안정 대책 마련 등 7개 분야로 서귀포시는 28개 부서, 539명을 투입한다.

또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긴급 대응체제도 유지한다. 3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예로부터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다. 고향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며 희망을 그릴 수 있어서다.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featuring '감굴 포트묘목 분양' and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Advertisement for '민성종묘' (Minseong Seedling) featuring various types of '감굴묘목' (Gangul seedlings).

Advertisement for '자원종묘' (Jawon Seedling) featuring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Advertisement for '서귀종묘' (Seogwi Seedling) featuring '모든품종 감굴(묘) 분양'.